



Selamat Bertemu ✨ nice to meet you ✨ 반갑습니다

\_Kuala Lumpur, 9월의 말레이시아

김현진, Jake  
박온유, Annie  
신인하, Ina  
윤하림, Halim  
조수영, Sue

## 9월의 말레이시아,

Selamat Bertemu, orang Malayu ✨ nice to meet you, Malaysian!

### 1. 떠나기 전



가끔 나(Annie)는 이곳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날의 밤이 문득 생각나곤 한다. 참 많이 가고 싶었고 기대했었던 순간이었는데도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무서웠는지 하루 종일 설레는 기분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고 먹먹한 감정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웠던 날이었다. 그 날의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상상하며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뭘 그리 유난을 떠느냐고, 5개월이란 시간은 짧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3주간의 국내 훈련과 한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5개월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 걱정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이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모두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 날 밤을 지새웠다. 참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한 팀씩 한 팀씩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들었던 다른 팀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운 감정과 함께 이제 정말 우리 5명만 오롯이 남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 이제 정말 우리 5명이 써나갈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 2. 말레이시아 도착



저녁 무렵 도착한 쿠알라룸푸르는 습하고 후덥지근한 열기를 내뿜으며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어디인가를 실감케 해주었다. 공항에서 YMCA까지 가는 동안 KL의 야경을 보면서 Sue는 이곳이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나 역시도 최신식 공항,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보며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이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한 달간 지내게 될 YMCA HOTEL은 지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편하게 생활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느낌과 동시에 소위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편하게만 지내도 되나하는 마음이 교차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멋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이곳에서의 단상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Ina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Ina는 이곳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무얼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내훈련 때도 '무엇을 주려하지 말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자. 말레이시아는 배울 것이 많은 곳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곤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게 된 고민을 해결해 줄 그 말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모든 걸 즐기며 재미있게 지내보자고 약속했다.

### 3. 활동시작

우리는 도착한 다음날 아침, 앞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일정과 생활에 대한 도움을 줄 YMCA 코디네이터, Irene을 만났다. 넉넉한 인상을 가진 Irene은 한 번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해주었고 우리의 부족한 영어를 염려하여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 주었다. 그녀는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귀기울여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Irene은 우리에게 쿠알라룸푸르에서 지내게 될 한 달 동안의 스케줄과 활동계획을 이야기 해주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Bethany Home과 Penang YMCA에 가서 하게 될 활동들과 관련돼 있었다. community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일 진행되는 바하사 말레이시아(BM) 수업, 수화 수업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미리 경험해 보기 위해 PMY pre-school의 deaf children, Wisma Harapan의 mental handicapped children과 진행할 활동들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갈 모든 것들이 신나고 기대됐다. 또 한 가지 좋았던 것, 혹은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가 머무는 9월부터 2월까지인 Hari Raya Aidil Fitri, Deepavali, Hari Raya Haji, 크리스마스, Chinese New year 등 공휴일이자 축제가 많아서 여기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도착하고 바로 이를 뒤엎던 지난 10,11일은 말레이시아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Hari

Raya Aidil Fitri였는데 우리는 간단한 말레이시아 문화와 예절에 대한 공부를 한 후 YMCA 멤버 중 한 명인 Sarah의 오픈하우스(open house)에 갔다. Sue와 나는 Irene이 준비해준 바주꾸롱(말레이시아 여성 전통의상)을, Ina와 Jake는 한복을 입고 몇몇의 staff들과 함께 간 사라네 집에서 우리는 준비된 명절음식을 나눠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오순도순 사는 Sarah네 집안 분위기는 우리에게도 따뜻함으로 다가왔고 머무는 내내 우리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신경 써 주셨던 가족들의 친절함에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한 말레이시아의 축제는 그렇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았다.

우리는 그 날 이후에도 YMCA 호텔리어인 Simon의 친구, 우리의 BM 선생님 Noorita의 집에 초대받아 다양한 오픈하우스를 경험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은 오픈하우스는 가족,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오픈하우스를 연 집에 함께 모여 휴일을 즐기고 축하하는 말레이시아의 문화이다. 대개 무슬림들이 자주 열며 초대된 집에서 음식과 쿠키를 준비하면 손님들은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그것에 답례하는 것이 보통이다. 식탁에 음식이 준비되면 그 주위에 의자에 둘러앉은 손님들은 원하는 만큼 음식을 덜어서 먹으면서 식사를 한다. 우리가 초대받은 오픈하우스의 모든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초대할 경우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응했다. (가끔 우리 팀원 J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과하게 먹어 심하게 탈이 나기도 했다.) Simon의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역시 즐거웠는데 그곳에는 우리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사람들이 와있었다. 함께 말레이시아 드라마를 보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노래를 듣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좋았지만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현지 사람들에게 선물하려고 한국에서 복분자주, 더덕주 등 한국 전통술을 가져왔는데(공항에서 짐을 부칠 때 각 팀원당 2병씩 나눠담느라 무척 고생했다) 무슬림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모두 다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선물들을 준비해야 했다는 점이다. 미리 이곳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왔다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든다.



## (1) sign language



우리가 KL YMCA에 지내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수화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많은 deaf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루에 2시간씩 진행된 수화 수업은 이곳 YMCA의 staff인 sandy가 진행했는데 선생님인 동시에 우리의 친구였던 그녀는 기억력이 심각하게 좋지 않은 우리 다섯 명을 가르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sign language 수업은 주로 단어를 수화로 배우고 따라한 후 그림카드를 통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우리는 각자 소장, 대장에서부터 있는 연기력, 없는 연기력 모두 끌어내며 나름대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며 재미를 느꼈다. 때로는 서로의 연기력을 비난하기도 하고 점점 나아지는 표정연기에 함께 넘어갈 듯 웃기도 하면서 우리는 수화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Ina는 '평소 표정이 없다' 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라 '처음에는 수화 수업이 힘들었지만 점점 손짓, 몸짓으로 묘사하는 것과 다양한 표정을 짓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됐다' 고 만족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화를 배우는 일이 쉽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수화를 할 때는 하나의 제스처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Sue는 수화가 필기를 해서 외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기억해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공부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는 같은 표현을 배운 후에 각자 기억하는 동작이 달라서 당황하기도 했고 사진으로 된 책을 보면서 따라할 때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알쏭달쏭 할 때가 많았다.

그래도 우리가 수화를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화 수업이 단순한 학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들이 모두 현지 deaf staff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Sandy를 비롯한 몇몇 이곳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일이 많았는데 이 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기도 하고 새로운 표현들을 알아가기도 하면서 오히려 수업시간 보다 더 많은 수화를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듯 그들과 더 많이, 더 가깝게 어울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중에서야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소 deaf들과의 만남에서 별로 말이 없었던 Jake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다. Jake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말이 많은 팀원들 사이에서 deaf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팀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서 deaf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일대일로 deaf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다면 나에게도 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텐데 '하며 아쉬워하는 Jake을 보면서 우리 모두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사소한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우리는 아는 수화 단어보다 모르는 단어가 더 많고 배운 수화동작들도 자주 실수하곤 한다.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Sandy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그저 멍하니 손만 바라보고 있던 그 때를 생각하면 한 달간의 변화가 굉장히 신기하고 부듯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단순히 수화표현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이곳의 staff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우리는 한국에 가서도 우리끼리 수화를 사용하자는 말을 하곤 한다. 수화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고 비밀스러운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팔팔대며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는 신문에서 한국 deaf들을 위한 학습센터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고는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서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고 가능할 것이라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조금씩 꿈꾸게 된다.





## (2) 바하사 말레이시아어(BM) 수업

국내훈련을 통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수화에 비해 이곳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한 BM 수업에 대해서는 몇몇 팀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섯 명의 팀원 모두 처음 접해본 언어이긴 했지만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탓에 영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몇몇 팀원들은 수업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가 가능한 팀원들과 그렇지 않은 팀원들이 짝을 지어 앉아서 통역을 해가며 수업을 받게 되었다.

통역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우리는 각자 언어를 학습하는 속도와 정도의 차이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처음에 Ina는 된소리 발음이 많은 말레이시아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했고 하림은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업에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수업에서 배운 간단한 회화표현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음식을 주문해보기도 하고 현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면서 조금씩 말레이시아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BM에 적응할 수 있었던 데는 Noorita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 Noorita는 어렵고 딱딱한 암기식의 수업보다는 매일 진행되는 간단한 퀴즈와 게임을 통해 우리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말레이시아 쿠키나 음식을 준비해와 함께 먹으면서 말레이시아 문화나 전설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시간은 BM 수업이 주는 가장 큰 재미중에 하나였다. 그뿐 아니라 Noorita는 우리에게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오픈하우스에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기도 했다. KL에서 먹었던 가장

맛있는 음식 중 하나인 노리타의 요리는 우리를 모두 기쁘게 해주었고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가족들과 평소 수업시간에 배운 표현들을 사용해 대화해보는 재미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웃음을 줬던 일은 오픈하우스가 끝나고 Noorita의 차를 타고 Y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다. Noorita의 차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차의 뒷자리에는 우리 다섯 명 모두가 타야만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온 Halim은 도저히 Jake를 무릎에 앉히고 탈 수 없다며 자신이 Jake의 무릎에 앉았다(-\_-). 좁은 차안에서 꾸깃꾸깃 찌그러져 서로 붙어있던 Ina와 Sue, 그리고 나는 (더구나 말레이시아 전통의상인 바주꾸롱을 입



어서 무척 더웠던 우리는) 덥고 힘들어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다. 점점 배가 더 심하게 아파진 Halim은 계속해서 빨리 Y로 가자고 외쳤지만 Noorita는 잠깐이면 된다고 자신이 졸업한 대학 캠퍼스 안까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림을 미치게 만들다. 그쯤 되니 Jake의 무릎에 Halim이 앉은 그 불안정한 형상부터 시작해서 하림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모습, 땀이 줄줄 흐르며 덥고 힘든 것. 그 모든 상황들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조그만 차 안에서 달빛 아래 미친 아이들처럼 웃어버렸다. 희한한 밤이었다.

사실 이곳 KL YMCA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어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바하사 말레이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우리가 곧 가게 될 베다니 홈에서는 많은 staff들과 학생들이 말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하니 아직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우리는 걱정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배운 기초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베다니 홈에 가서도 함께 바하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고 약속했다. 물론 우리의 Noorita는 없겠지만,



### (3) PMY Child

우리는 지난 달 21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동안 PMY(Pusat Majudiri Y for the deaf) Pre-school에서 deaf 아이들 6명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PMY는 YMCA에서 운영하는 deaf center로 deaf community를 지원하기 위한 sing language courses, speech therapy, education support, tuition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Pre-school은 3살부터 6살까지의 deaf children들의 학습과 놀이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2번의 아침식사를 만드는 것과 과학·미술 수업, 게임, 야외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5일간의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며칠 전 PMY 선생님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의논했다. 국내에서 준비해 온 물품들을 함께 보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대부분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그 날 Sue는 처음에 PMY 선생님들이 우리가 제안한 모든 수업들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일에 대해 생각해보니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당장 말로 할 수 없어 잠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deaf가 아닌 내 속도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지어 버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sign language를 이해할 수 없어서 대신 그들의 표정을 많이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Sue의 말처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건 우리가 그 전에 그 또래의 deaf 아이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그들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였던 것 같다. 처음부터 부딪힌 난관에 기운이 빠지기도 했지만 막상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니 그때의 일은 모두 잊을 만큼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었다. 우리가 만든 주먹밥, 야채 죽이 별로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먹기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웃으며 괜찮다고, 맛있다고 하면서 웃어주던 아이들에게 고마웠던 순간, 우리가 정성들여 준비한 수업에 관심을 보이며 잘 따라와줘서 뿌듯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내 기억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모군의 말에 따르면 ShahMi는 주먹밥을 먹다 토했고, Zi Kin은 이게 과연 먹는 것인가 생각하며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PMY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일반 아이들과 다른 deaf 아이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서 수업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했다. 함께 읽을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이인형들을 만들고 미술수업 전에는 항상 샘플을 만들어야 했으며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아이들 옆에 일대일로 붙어서 모든 과정을 도와줘야 하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사소한 노력들이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들 고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수업재료들을 만들 때마다 항상 대부분의 일을 맡게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준 Ina에게 우리는 늘 고맷다. 아마 Ina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 다른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들이 각각 맞는 장소에 쓰여 그만큼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바라본다.



#### (4) deaf dinner party

지난 달 25일, KL YMCA에서 International deaf dinner party가 열렸다. 이 행사는 약 2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YMCA staff들은 몇 주 전부터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가고 있었다. 우리도 이 행사에 필요한 작은 일들을 도왔는데 손님들을 위한 기념품 포장, 무대를 꾸미는 일을 돕기도 했고 행사 당일 전통춤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일정이 끝나고 난 뒤에는 모여서 춤을 연습했다.

사실 우리는 기념품을 포장하는 일이나 무대를 꾸미는 일을 하는 동안 staff들의 지시가 서로 달라 혼란을 겪었던 적도 있었고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나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때도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비효율적인 작업방식이라 말하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느긋하게, 천천히' 생활방식에 대해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 항상 빠릿빠릿한 것이 좋은 것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만 인정받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는 여기서 몇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KLCC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역에서 표를 끊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로 떠밀리고 여러 대의 기계가 동시에 고장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재촉하는 사람 없고 항의하는 사람 없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을 봤을 때였다. 그곳에서 초조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우리뿐이었다. Welfare NGO open house에 초대받아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행사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되는데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그저 태평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화도 났고 그 시간이 지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곳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들과 함께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내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이러한 여유로움 때문은 아닐까하고,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그 순간이 답답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5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들의 천천히 살아가는 방식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

막상 디너파티 당일이 오니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족하기 짝이 없는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우리는 급게 한복을 차려입고 이 디너파티를 축하하기 위한 우리의 춤을 최대한 신나고 행복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우리는 탈과 한삼을 이용해 탈춤을 선보이고자 했는데 연습한 만큼이라도 했으면 좋았으련만 무대에 올랐는데 갑자기 음악이 이상하게 나오는 바람에 순간 엄청 당황하고 말았다. 그 후로도 몇 개의 동작들에서 실수를 해 무척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공연이었다고 칭찬해 주셔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울적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

deaf dinner에서는 우리들의 허접한 공연 외에도 우리의 sign language 선생님이자 절친인 Sandy가 중심이 된 deaf beat의 멋진 북 연주, deaf 단편영화제의 영화상영, 마임공연과 수화 노래 공연 등 조용하지만 새롭고 신나는 공연들이 이어졌다.



우리 공연이 끝난 후에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요상한 한국 아이들 5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가 보고 싶은데 물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온갖 질문들을 받으며 그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 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deaf였기 때문에 그들과 수화를 사용해 대화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다. 우리는 평소에도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보다 수화로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훨씬 다양해지고 감정표현에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기를 원했고 우리는 그 날 아마 1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던 것 같다. 이런 관심이 처음엔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저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관심을 고맙게 받으며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 날 이후 Ina와 Sue는 deaf들의 유쾌함에 반해 'deaf 예찬' 을 시작했고, Jake과 Halim은 이번 파티를 통해 수화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비록 하루였지만 우리는 가끔 지금도 그 날의 일들을 꺼내어 추억하곤 한다. 그곳에서 수화로 신나게 떠들고 있는 우리가 deaf가 아니라는 것에 깜짝 놀라던 사람들. 무엇이 보편이고 정상인지 세상의 기준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그 날을 우리는 쉽게 잊지 못할 것 같다.



### (5) Wisma Harapan



우리는 6일부터 8일까지 베다니 홈에서의 활동을 미리 경험해보기 위해 Wisma Harapan 에서 일했다. 그곳은 정신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7세부터 17세까지를 위한 day school, 봉투 붙이기, 케첩 포장 등 간단한 작업들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sheltered workshop, 종이를 이용해 바구니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주문을 받아 팔기도 하는 수공예 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에게 정신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법을 터득해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day school에서 그곳 선생님들의 보조교사로서 일하기로 했다.

그 시간 또한 모두 즐겁고 좋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우리는 그 시간동안 많이 힘들었고 지쳐버렸다. 사전에 미리 논의하기로는 첫날 우리는 선생님들의 보조역할만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당일 갑작스럽게 우리들이 무언가를 진행하기를 요청받았고 우리는 매우 당황했다. 결국 미리 준비된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 것과 노래를 함께 배워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 순간을 대처했다. 갑작스러운 요청은 버거웠지만 나름 실제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지



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전에 정신장애 아동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Jake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은 그저 멀리서 보고만 계셔서 우리들은 그 곤란한 상황에서 모두 진땀을 흘려야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그 날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특히 Sue와 나는 그곳의 아이들을 대하면서 순간순간 두려움, 공포심 같은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덩치가 나보다 훨씬 큰 아이들이 나에게 달려오거나 안길 때 나는 순간 크게 놀라는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다. 나를 해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데도 아이들을 향해 그런 감정을 가지는 내가 부끄러웠다. Sue는 '3일간의 활동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인 것 같이라며 '앞으로 6주간 지내게 될 베다니 홈 생활을 통해 지금 느끼는 이런 느낌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의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모두 한순간의 감정, 지나친 기우였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WISMA HARAPAN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찾은 Wisma Harapan에서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 맡게 된 일은 그곳의 게시판판을 꾸미는 일이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겨우 1~2시간 남짓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끼리 교실에 앉아 색종이를 오리고 붙이며 선생님들이 부탁한 일을 해야 했다. 미술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된 Ina는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가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기 위함이었는데 기대했던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나중에 Irene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왜 그때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직접 요청하거나 어려움을 말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후회했다. 언제나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때때로 도움을 청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에 또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다르게 행동하자고 대처하자'고 우리는 이번 일에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된다.



"Birthday Boys"

10월 5일, 10월 7일은 각각 Halim(하림)과 Jake(현진)의 생일이였다  
 두 Birthday Boys를 위해 나머지 셋은 깜짝 파티를 준비해 둘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점에서 삼겹살!과 목살!을 먹고 2차로 한국음식을 사들고 방에 들어가 선물을 풀면서 또 한 번 축하했다. 타지에서 맞은 생일. 그리고 처음 생일을 함께 보내게 된 우리들. 공교롭게도 팀원들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생일을 맞게 되어 우리는 아직 세 번의 생일 파티를 남겨두고 있다. 생일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그라들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였다:D

**Jake, 26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처음으로 친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생일을 보내게 되었다. 생일 선물이라는 것도 받아 본 지 참 오래된 것 같다. 5년? 6년만인 것 같다. 그 동안은 친구들끼리 돈을 모으고, 한도를 정해서 현금으로 받거나 필요한 것을 내가 직접 샀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래와서인지 기분.. 흠.. 뭐랄까. 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 내 성격상 크게 표현을 못한 것 같다. 애들한테 왜 돈 아깝게 케익 따위를 샀냐고 말했다가 많이 혼났다..; 생일은 연중행사처럼 쓰러지게 술 먹고 진탕 노는 날이었는데 타지에서 동생들이 챙겨준 생일은 새로울 수밖에 없었다. 어떤 때는 한 없이 철없고 떼쓰는 어린애들 같은 동생들이지만 또 어떤 때는 이 동생들에게 하나 둘, 참 많은 것을 배운다. 사실 요즘엔 배우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라면 나머지 시간도 금방 지나갈 것만 같다. 모든 일이 끝나면 점차 생활에 치여 지금의 일들을 잊을 수도 있겠지만 26살의 어색하고 색다른 이 생일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ஊ..Happy Birthday..ஊ



## 마지막. 말레이시아의 9월, 9월의 말레이시아를 떠나보내며,

요즘 우리는 이곳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베다니 홈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남기고 갈 짐과 가져갈 짐을 분리해서 각자 챙기고 Irene과 베다니 홈에 대한 브리핑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각자 그곳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고 있다. 또 일정이 끝난 후에는 수화선생님 Sandy, PMY선생님 Esther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쉬운 마음을 다독이고 있다.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쉽고 슬프다.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요즘 매진하고 있는 일은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바로 이 보고서에 담는 것이다. 이번 달 보고서의 정리를 맡게 된 나는 팀원들에게 특별한 기억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말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글로 정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 시간을 갖다보니 우리는 아쉽게 놓쳤던 부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Sue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대해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난 왜 처음 여기 도착했을 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을 때처럼 불안하고 불편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 나만 했겠지?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웃긴거야. 이렇게 편안하고 심지어 친한 친구가 될지 몰랐으니깐' 물론 모두가 Sue의 말에 공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녀의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짐작 할 수 있었다. 나 역시도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몇몇 이들과는 친구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 '이 사람은 한국사람 같이 생겼다. 저 사람은 유난히 까망네.' 하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우리와 비슷한지 다른지를 논하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느꼈던 일종의 부끄러운 감정이 아마 그녀의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앞으로 전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속 어디선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검은 피부에 대한 이미지, 동남아 국가에 대한 단상들에 따라 반응하는 자신을 보며 종종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걸어야 할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또 그들의 문화를 내 것과 동등한 위치에서 받아들이는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Ina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녀의 말에 대부분이 동감했는데 그것은 9월 한 달간 활동에 치우쳐 우리 팀원 간 관계의 문제에 대해 많이 소홀했다는 점이다. 일정이 끝난 후 함께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때도 많았고 때문에 서로의 힘든 점을 알아채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 팀은 단체라는 이름에 묶여 개인의 생각을 정리 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일정이 끝난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개인의 자유에 많이 맡기곤 했는데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팀원 모두가 무언가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데는 확실히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Jake는 베다니 홈에 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Sue는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토론은 국내훈련을 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 가면 함께 하자고 계획했던 일 중 하나였는데 Sue는 그것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나보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했다면 할 수 있었을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그런 아쉬움을 남기

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서로를 격려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았다. 우리가 지금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 아닐까.

---

글 : 박은유, 조수영

그림 : 신인하

사진 : 윤하림, 신인하, 조수영

Selamat Bertemu, 9월의 말레이시아